

경성백승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5.07.21.	조사자	최선호	유형구분	문화예술-연구진제안
------	-------------	-----	-----	------	------------

대상명	경성백승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 서울단위 □ 마을단위
----------	----	-------	---	------------	---------------

작가	동아일보사 출판부	출간연도	1929년																																																																																																															
내용	<p>이 ‘내동리 명물’ 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여름에 경성부내의 1백 동정을 추리어 1백 명물을 마련하여 사진과 아울러 당시의 본보 ‘중앙판’ 에 50여일간을 연재하여 독자의 대환영을 받는 사진과 기사의 전부를 수록한 것입니다. 명물의 제제는 다종다양이므로 혹은 엄정한 견지에서는 적당치 못한 것이 많을 듯하나 고열에 질린 독자에게 취미와 실익의 청량제를 제제의 개정, 문구의 수정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합니다. 당시 편집의 책임은 내가 담당하였고, 집필은 사회부 기자 일동이 담당하였으나 재료의 대부분은 홍명희, 정인보 양씨의 제공이었습니다.</p> <p>내 고을 명물과 내 동리 명물은 성질상 가름으로 이제 자매편으로 수록하거니와 출판에 즈음하여 당시 동인들의 노력에 감사하면서 당시의 <사고社告>를 그대로 기록하여 서두에 부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묘년(1927) 4월 23일 입사 만5주년을 앞두고 편자 지識</p> <p style="text-align: center;">* * * * *</p> <p style="text-align: center;"><경성백승 목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1</td><td style="width: 20%;">종로 종각</td><td style="width: 5%;">20</td><td style="width: 20%;">낙원동 측후소</td><td style="width: 5%;">39</td><td style="width: 45%;">관동 독립관</td></tr> <tr> <td>2</td><td>안국동 감고당</td><td>21</td><td>인사동 태화관</td><td>40</td><td>교북동 독립문</td></tr> <tr> <td>3</td><td>공평동 재판소</td><td>22</td><td>다옥정 기생</td><td>41</td><td>동숭동 낙산</td></tr> <tr> <td>4</td><td>원동 모기</td><td>23</td><td>와룡동 종부시</td><td>42</td><td>서린동 구치감</td></tr> <tr> <td>5</td><td>수송동 기마대</td><td>24</td><td>인의동 연초공장</td><td>43</td><td>승인동 관왕묘</td></tr> <tr> <td>6</td><td>계동 위생소</td><td>25</td><td>삼각정 굽은다리</td><td>44</td><td>천연동 천연지</td></tr> <tr> <td>7</td><td>소격동 종친부</td><td>26</td><td>수표정 수표교</td><td>45</td><td>궁정동 육상궁</td></tr> <tr> <td>8</td><td>가회동 취운정</td><td>27</td><td>익선동 출행랑</td><td>46</td><td>연건동 갓바치</td></tr> <tr> <td>9</td><td>화동 복주우물</td><td>28</td><td>도염동 모형탑</td><td>47</td><td>봉래정 빈민굴</td></tr> <tr> <td>10</td><td>송현동 식은촌</td><td>29</td><td>관수동 관수교</td><td>48</td><td>체부동 돌함집</td></tr> <tr> <td>11</td><td>삼청동 성제우물</td><td>30</td><td>청진동 내외주점</td><td>49</td><td>송삼동 성균관</td></tr> <tr> <td>12</td><td>수은동 포도청</td><td>31</td><td>훈정동 어수우물</td><td>50</td><td>적선동 종침교</td></tr> <tr> <td>13</td><td>운니동 짚짚우물</td><td>32</td><td>병목정 갈보</td><td>51</td><td>창신동 창신궁</td></tr> <tr> <td>14</td><td>재동 백승</td><td>33</td><td>미근동 초리우물</td><td>52</td><td>옥인동 송석원</td></tr> <tr> <td>15</td><td>돈의동나무장</td><td>34</td><td>예지동 동문시장</td><td>53</td><td>죽침정 굴</td></tr> <tr> <td>16</td><td>견지동 민공구택</td><td>35</td><td>권농동 경관각</td><td>54</td><td>척업정 효창원</td></tr> <tr> <td>17</td><td>팔관동 청기와집</td><td>36</td><td>장교정설명당</td><td>55</td><td>통의동 사재감</td></tr> <tr> <td>18</td><td>경운동 민자작저</td><td>37</td><td>효계동 해나무</td><td>56</td><td>청운동 청풍계</td></tr> <tr> <td>19</td><td>관훈동 충훈부</td><td>38</td><td>행촌동 은행나무</td><td>57</td><td>무교동 장전</td></tr> </table>	1	종로 종각	20	낙원동 측후소	39	관동 독립관	2	안국동 감고당	21	인사동 태화관	40	교북동 독립문	3	공평동 재판소	22	다옥정 기생	41	동숭동 낙산	4	원동 모기	23	와룡동 종부시	42	서린동 구치감	5	수송동 기마대	24	인의동 연초공장	43	승인동 관왕묘	6	계동 위생소	25	삼각정 굽은다리	44	천연동 천연지	7	소격동 종친부	26	수표정 수표교	45	궁정동 육상궁	8	가회동 취운정	27	익선동 출행랑	46	연건동 갓바치	9	화동 복주우물	28	도염동 모형탑	47	봉래정 빈민굴	10	송현동 식은촌	29	관수동 관수교	48	체부동 돌함집	11	삼청동 성제우물	30	청진동 내외주점	49	송삼동 성균관	12	수은동 포도청	31	훈정동 어수우물	50	적선동 종침교	13	운니동 짚짚우물	32	병목정 갈보	51	창신동 창신궁	14	재동 백승	33	미근동 초리우물	52	옥인동 송석원	15	돈의동나무장	34	예지동 동문시장	53	죽침정 굴	16	견지동 민공구택	35	권농동 경관각	54	척업정 효창원	17	팔관동 청기와집	36	장교정설명당	55	통의동 사재감	18	경운동 민자작저	37	효계동 해나무	56	청운동 청풍계	19	관훈동 충훈부	38	행촌동 은행나무	57
1	종로 종각	20	낙원동 측후소	39	관동 독립관																																																																																																													
2	안국동 감고당	21	인사동 태화관	40	교북동 독립문																																																																																																													
3	공평동 재판소	22	다옥정 기생	41	동숭동 낙산																																																																																																													
4	원동 모기	23	와룡동 종부시	42	서린동 구치감																																																																																																													
5	수송동 기마대	24	인의동 연초공장	43	승인동 관왕묘																																																																																																													
6	계동 위생소	25	삼각정 굽은다리	44	천연동 천연지																																																																																																													
7	소격동 종친부	26	수표정 수표교	45	궁정동 육상궁																																																																																																													
8	가회동 취운정	27	익선동 출행랑	46	연건동 갓바치																																																																																																													
9	화동 복주우물	28	도염동 모형탑	47	봉래정 빈민굴																																																																																																													
10	송현동 식은촌	29	관수동 관수교	48	체부동 돌함집																																																																																																													
11	삼청동 성제우물	30	청진동 내외주점	49	송삼동 성균관																																																																																																													
12	수은동 포도청	31	훈정동 어수우물	50	적선동 종침교																																																																																																													
13	운니동 짚짚우물	32	병목정 갈보	51	창신동 창신궁																																																																																																													
14	재동 백승	33	미근동 초리우물	52	옥인동 송석원																																																																																																													
15	돈의동나무장	34	예지동 동문시장	53	죽침정 굴																																																																																																													
16	견지동 민공구택	35	권농동 경관각	54	척업정 효창원																																																																																																													
17	팔관동 청기와집	36	장교정설명당	55	통의동 사재감																																																																																																													
18	경운동 민자작저	37	효계동 해나무	56	청운동 청풍계																																																																																																													
19	관훈동 충훈부	38	행촌동 은행나무	57	무교동 장전																																																																																																													

내용	58	서대문정 흥화문	73	간동 공인가	87	연지동 개구리소리
	59	혜화동 풍차	74	수하동 일본빈민굴	88	의주통 도깨비굴
	60	평동 망건방	75	승이동 자동차수선공장	89	효자동 내시
	61	이촌동 수해	76	중립동 천주교당	90	송월동 월암
	62	창성동 썩은다리	77	승사동 월사구기	91	광희정 파리
	63	승일동 앵도밭	78	통의동 동척사택	92	합동 춘향
	64	신교동 선회궁	79	이화동 장생전	93	교남동 대장간
	65	옥천동 연적교	80	서계동 편쌈터	94	냉동 휴지도가
	66	마포동 마포	81	원남동 권초각	95	관철동 동상전
	67	사직동 사직단	82	충신동 백채포	96	장사동 묘심사
	68	누상동 백호정지	83	내자동 내자시	97	홍파동 전내집
	69	현저동형무소	84	누하동 찜지	98	당주동 와다시
	70	필운동 돌거북	85	중학동 구중학	99	통동 임금원
	71	수창동 내수사	86	도화동 연와공장	100	종로 낙석탑
72	정동 서양인촌					
평가	<p>1920년대 문화정치기에는 다수의 신문과 잡지가 창간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행 부수에 대한 경쟁이 촉발되었다. 각 신문은 발행부수 확보를 위해 미디어 이벤트를 진행했다. 1920년에 창간되어 당시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지닌 동아일보는 1924년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내동리 명물’이라는 미디어 이벤트를 실시했다. 행정구역별 하나의 명물을 선정하여 ‘내동리 명물’이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사를 게재했다.</p> <p>‘내동리 명물’ 투고 시 독자는 명물 선정 배경을 작성해야 했다. 명물의 유래와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을 통해 1920년대 경성시민의 경관에 대한 시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명물의 당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p> <p>이처럼 1924년에 선정된 내동리 명물에는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지닌 건물도 포함되기도 했고, 비록 외형은 보잘 것 없으나 현재의 스토리텔링에 견줄만한 이야기 요소가 담긴 경관요소 또한 명물로 선정되었다. 명물로 선정된 경관요소는 조선시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그 기능이 상실되어 쇠락한 조선의 모습을 재가공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동리 명물의 선정 기준이 당시의 유명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1929년 『경성백승』 광고처럼 경성을 대표하는 경관요소로 부적합할 수 있다. 명물 선정에서도 동아일보가 최종 선정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명물선정 방식의 절차와 경관요소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알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p> <p>출처 : 김해경; 유주은, 2014, ‘내동리 명물’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경성 시민의 경관 인식, pp.212-213, 242</p>					

2. 보존필요성

- 1920년대 동아일보에서 행정구역별로 하나씩 명물을 선정하여 연재한 기사를 모아 출판한 도서
- 각 동리에 거주하는 독자들이 직접 작성한 명물 선정 배경을 통해, 당시 경성시민의 경관에 대한 시선, 시대에 대한 인식, 명물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음

3. 활용방향

- 시민홍보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

4. 기사사항

□ 내동리 명물의 선정 과정 및 특징

- 당시 경성부내에 186개의 정(町)과 동(洞)이 있었지만, 내동리 명물의 선정 범위는 경성시내 100개 동리로 한정함. 이는 186동리 전부를 대상으로 하면 지루하고, 101곳의 정은 대부분 일본인 중심의 지역이기 때문임. 따라서 85개 동과 조선인 중심의 15개 정을 선정하였음
- 내동리 명물의 선정은 훌륭하고 좋은 것이 아닌 그 동리에서 가장 이야기 거리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음. 따라서 대상의 좋고 나쁨,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 동리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입에 오르내리면 명물로 선정함
- 내동리 명물로 선정된 대상들을 유형화하면, 건축요소 54건, 생물요소 17건, 마을 및 장소 14건, 기반시설 13건, 기타 2건으로 분류됨

출처: 김혜경; 유주은, 2014, '내동리 명물'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경성 시민의 경관 인식, pp.218-221
 동아일보 "내동리 명물과 독자의 궁금풀이" 1924년 07월 23일자 기사내용 (<http://newslibrary.naver.com/>)

□ 동아일보 내동리 명물 선정과 관련된 기사목록

신문기사	내용
1924년 06월 05일	모집기사 공고
1924년 06월 14일	모집기사 폭주라는 내용 제안내
1924년 06월 20일	기사 폭주(1200부)로 인한 선별문제 발생으로 06월 25일 게재 연기
1924년 06월 25일	매일 2곳, 총 50회 연재 시작
1924년 07월 23일	연재 내용의 재홍보와 독자 궁금 사항 해설
1924년 08월 16일	연재 완료
1929년 11월 29일	경성백승(京城百勝) 단행본 출간

출처: 김혜경; 유주은, 2014, '내동리 명물'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경성 시민의 경관 인식, p.220

□ 관련기사 - "시내독자위안"

여름이 점점 깊어갑니다. 도회의 여름이라 더욱 괴롭습니다. 그래서 훈훈하고 텁텁한 기운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둘러싸여 그야말로 눈뜨고도 꿈꾸리만큼 사람의 정신을 느슨하게 하고 흐리터분하게 합니다. 이때를 당하여 본보를 사랑하시는 독자제씨에게 훌륭한 위안거리는 선사치 못한다 하더라도 날마다 여러분 압혜보회는 기사자테로써 대신할 방법이 업술가하고 연구한 결과 위선이 것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서울은 여든다섯군대의 동(洞)과 일백한구대의 덩(町)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리에든지 반듯이 그 동리의 명물이 잇을것이외다. 전례를 들면 종로에 종각, 서소문에 아편굴 가튼것이외다. 이와가튼 명물을 별항에 지정한 일백동덩에 일백가지를 추리여 하루에 둘식 재미잇는 기사와 사진을 아울러 날마다 계속 게재하여 독자제씨의 취미와 실익을 도우는 동시에 아래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선사를 드리려 합니다.

◇현상규정◇

- ▲발표할 명물은 임의 본사에서 일반이 인정할만한 것을 엄밀하게 추리여 오는 이십일 신문부터 게재함
- ▲본사에서 발표한 바와 가튼 "명물" 을 투고하신 독자를 정해 자로함
- ▲정해자가 만홀때는 상당한 추천으로 한동리에 한사람을 한하여 상품을 드리기로 함
- ▲수상자는 당일본면에 발표하고 즉시 본보 일개월분 무료구독권을 진정하기로 함

◇현상규정◇

- ▲명물은 조흔 의미로든지 낫분 의미로든지 크고적은 것을 불고하고 그동리에서 일반으로 인정하여 이이 기거리가 되고 입우에 올르는 것은 무엇이든 지취함
- ▲투고는 그동리사람이 그동리 명물 한가지에 한하되 "명물" 인 리유와 장소를 간단히 부기할 일
- ▲용지는 엽서로 주소성명파 "중앙관계" 라고 분명히 쓸 일
- ▲기한은 이달십오일까지 본사에 도착되도록 할일

출처: 동아일보 1924년 06월 05일자 기사내용 (http://newslibrary.naver.com)